

아동학대 유형과 사례

박 태 수*

〈 목 차 〉

- | | |
|----------------------|------------------|
| 1. 들어가기 | 4. 아동학대로 인한 후유증 |
| 2. 왜 아동학대에 관심을 가지는가? | 1)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동 |
| 3. 아동학대 유형과 사례 | 2) 정신적 학대를 받은 아동 |
| 1) 신체적 학대 | 3) 성적 학대를 받은 아동 |
| 2) 정신적 학대 | 4) 방임적 학대를 받은 아동 |
| 3) 성적 학대 | 5. 마무리 |
| 4) 방임적 학대 | 참고문헌 |
| | Abstract |

1. 들어가기

오늘날 아동학대는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그 결과가 단순한 타박상이나 골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치명적일 수 있으며, 신체적 손상 외에 아동의 사회·심리적 발달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그 영향이 성인기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대처를 요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공계순, 1999).

아동학대와 관련된 많은 책들이 출판되고 있으나 그 중에서 「한 아이」와 「딤스」는 아동학대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 아이」의 주인공인 실라는 여섯 살 난 여자아이로서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술주정꾼인 아버지에게 구타당했으며, 아저씨로부터 성폭행까지 당했으나 한 여교사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자신을 찾아가게 된다. 그리고 「딤스」의 주인공 딤스는 부모의 냉대와 무시로 인해 마치 저능아처럼 행동했는데 한 심리학자의 도움으로 그의 천재성이 되살아났다.

실라는 태어난 후 6년간 어느 누구로부터도 환영받아 본 적이 없고, 무시당하고, 거부당하기만 했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직과 교수

다. 실라의 어머니는 가출을 하였고, 운전중 실라를 차 밖으로 밀어내어 굴러 떨어뜨렸으며, 실라는 바위에 부딪쳐 다리가 찢어졌다. 이러한 학대에 대한 복수로 그 아이는 집에 불을 지르고, 화장실 벽에 배설물을 바르는 행위로 세 번씩이나 경찰에 끌려갔다. 실라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인정을 베풀고, 어떻게 친절해야 하는지를 배울 기회가 없었다. 오로지 생존하기에 급급했다. 결과적으로 실라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투쟁하며 끝없는 복수심을 키웠으며, 방해받거나 속임을 당했을 때는 무서운 힘으로 보복하였다.

딥스의 경우도 그의 부모가 과학자인 아버지, 외과전문의인 어머니였지만 딥스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지도 않으며, 걷는 것도 느리고 야수처럼 사람들에게 달려든다는 것 때문에 그는 부모로부터 냉대를 받고 무시당했다. 딥스의 아버지는 딥스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쓸데없는 얘기 좀 집어치우지 못해”라고 욕박지르거나, 어쩌다 실수를 하면 “이 바보같은 녀석!”이라고 인격적인 모독을 하였다. 딥스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상한 아이로 취급받았으며, 부모는 그러한 아이를 남들이 알까봐 부끄러워 집안에 가두어 두었다. 그 결과 딥스는 부모에게 복수를 하게 되는데, 그는 놀이치료 과정에서 “아빠가 미워요. 다시는 나를 방안에 가두지 마세요. 또 그러면 죽여버리겠어요. 그 동안 너무도 심하게 굴었으니까요.”라든가, “나는 아빠를 위해 감옥을 만들겠어요.”라고 말한다. 이 장면에서 소년은 엄마와 아빠를 집안에 가두고 문을 모조리 잠근다. 그리고 아빠가 성냥 불을 켜다가 떨어뜨려 불이 나자, 소년은 “타게 내버려둬! 타게 내버려 둬!”라고 소리치며 강렬한 복수를 한다.

이 두 사례에서 보듯이 실라와 딥스는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인간으로 태어났으나 가장 천한 인간으로 대접받았다. 이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부모나 가까운 성인들로부터 신체 또는 정서적으로 피해를 입는 아동들이 많이 있다. 부모로부터 가장 소중하게 사랑받으며 자라야 할 그들이 어린 시절의 후유증으로 인해 평생동안 불행하게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 성인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이다.

본 주제에서는 이처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가 부모들이나 성인들의 무책임한 행위에 근거한다는 점을 들어 1)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관심, 2) 아동학대 유형과 사례, 3) 아동학대로 인한 후유증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왜 아동학대에 관심을 가지는가 ?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18세 미만의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보건복지부, 1999). 이는 아동의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 또는 성인이 신체나 도구를 이용하여 아동에게 심각한 해를 입히거나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침해받고 위협받는 상황으로 대부분 부모의 보살핌이나 사랑으로부터 거절된 18세 미만의 아동이 그 대상이다.

오늘날 점차 증가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폭력문제, 학업에 대한 동기부족, 대인관계 기술의 부족과 외로움, 자살 등의 사회문제는 이들이 바로 유아기의 아동양육과 부모와의 관계문제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적 성취의 상품적 가치나 외적능력의 과시에 급급한 나머지 성격의 원만함이나 인간성과 도덕성 같은 보다 기본적인 인간의 덕목을 간과하고 있다.

아동기에 경험하는 가족 또는 친구와의 관계는 성장한 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배척받았던 소녀는 평생동안 배척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그녀의 남편과 자녀들, 친구들이 아무리 그녀에게 헌신적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감정으로부터 유발된 분노를 계속 느끼게 될 것이다(이근후 외 역, 1988). 학교에서의 경험과 지식은 이후 직업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성 또래와의 관계는 연애 또는 결혼생활에 영향을 준다. 특히 학대받은 아동은 성장하면서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끼고, 쓸모 없다고 믿는다. 이로 인한 좌절감을 가까운 사람에게 분노를 느끼고 적개심을 발달시킨다. 또한 이들은 타인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한다. 아이들은 부모들에게 의존하고 믿을 수 있게 됨으로써 가족들 속에는 신뢰를 배운다. 그러나 학대받은 아동은 그들의 부모를 통해 어른들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어 신뢰가 요구되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처럼 인간의 삶의 과정, 특히 어린 시절의 경험은 성인기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자녀를 사랑과 존경과 이해로 관계를 맺지 못한 부모들로 인해 우리 주변에는 많은 아동들이 학대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이사회는 점점 병들어 가고 있다. 우리는 아동들이 초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한 인간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이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그들의 자녀들과 사랑하고 존경받는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자기 자신이 그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경험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3. 아동학대 유형과 사례

아동학대 유형은 학대받은 영역에 따라 신체적 학대, 정신적(정서, 언어)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으로 나누기도 하고 학대가 일어나는 곳을 중심으로 가정내 학대와 가정외 학대로 나누기도 한다. 홍강의(1999)는 아동학대의 유형으로 신체학대(Physical abuse), 신체방임(Physical neglect), 정서학대(Emotional abuse), 정서방임(Emotional neglect), 교육방임(Educational neglect), 성학대(Sexual abuse), 아동유기(Abandoned child)로 나누고 있다. 본 주제에서는 학대 영역에 따라 신체적 학대, 정신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적 학대로 나누고, 학대의 특성과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주제에서 제시한 영역별 아동학대 사례는 제주의 모 사회단체에서 상담한 예들이다.

1)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보통 사람들이 학대라고 말하는 것은 주로 신체적 학대인데, 이는 확연한 손상을 가져오며,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가해자의 의도가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어린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행위는 학대에 해당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의 조사에 따르면, 신체학대에서 손이나 회초리로 손바닥, 종아리, 엉덩이를 때리는 경우가 92.6%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빗자루나 굵은 몽둥이로 때린다가 80.0%, 얼굴이나 뺨 등을 때린다 72.5%, 물건을 던진다 51.4%, 칼이나 흉기로 위협한다 27.5%, 다락방이나 장롱 등에 가둔다 24.3%, 팔·다리를 묶는다 21.4%이다. 이 외에도 머리채 잡고 돌리기, 얼굴 꼬집기, 파리채로 때리기, 구둣발로 차기, 담뱃불로 지지기, 욕조에 머리 넣기, 가위로 긁기 등 잔인한 행위들이 있다. 이처럼 신체적 학대는 구타, 폭력, 감금 등 아동의 신체에 직접적인 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 사례 : 17세 가출 소녀 N양 -

17세 N양은 중학교 중퇴자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하여 계모와 살고 있으며, 13세때부터 가출하기 시작하여 절도, 폭행 등으로 다섯 번이나 소년원에 수감된 경력이 있다. N양은 아주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매일 같이 술을 마시고 어머니와 자신을 무차별 구타를 했으며, 아버지의 고함소리와 뭔가가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9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N양을 남겨둔 채 이혼하여 집을 나가고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

다. 1년 후 아버지는 N양보다 4년 연상의 여자를 새엄마로 만나 함께 살고 있다. 무능한 아버지는 새엄마의 구박을 받으며 술로 세월을 보내면서 N양에게 화풀이로 매질을 자주 했다. 재혼한 후에는 N양이 이들 부부에게는 언제나 화근이었으며 고함소리가 그칠 날이 없었다. 그 때마다 N양은 아버지로부터 매를 맞았고, 참다못해 가출을 결심한 어느 날 계모의 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다가 들켜 머리채를 잡혀 끌리면서 갖은 욕설과 야단을 맞았다. 아버지가 알면 더 매를 맞을 것 같아 도망쳐 나온 것이 가출의 계기가 되었다.

집을 나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으며, 집과 소년원을 들락거리다가 남자친구를 알게 되었다. 그들은 여인숙, 친구 자취 집으로 전전하며 서로 위로 받고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 자주 만나다가 임신을 하게 되었으나 남자 친구는 지난 겨울방학 때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했다. 그녀는 돈이 없고 갈 곳도 없어 물건을 훔치다가 절도죄로 소년원에 들어오게 되었다.

2) 정신적 학대

정신적 학대란 언어적, 정서적 학대라고도 하는데,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의 인격이나 존재, 또는 감정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나 잔혹하고 학대적인 부당함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언어적 또는 정서적 위협이나 고의적으로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신체적 학대처럼 그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학대는 아동의 정서나 사회성 발달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며, 특별한 질병을 갖지 않았더라도 발육부진의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에 따르면, 정서적 학대의 형태는 꼴도 보기 싫다, 병신, 이 원수야 라는 욕설이 72.9%, 학교 그만두고 집안 일이나 해라 53.7%, 집에서 쫓겨난 경험이 51.4%, 우리 집에서 너만 없었으면 좋겠다 47.8%, 나가 죽어라 또는 갖다 버리겠다 44.9%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무관심, 냉대, 거부, 시비 걸기 등이 있다. 이처럼 정서적 학대는 언어적 학대를 포함하며, 아동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주지 않은 행위, 아동을 다른 아동과 부정적으로 비교하는 행위, 아동이 보는 앞에서 부부간의 싸움 등이 해당된다.

- 사례 : 44세의 대인관계를 두려워 하는 K씨 -

44세인 K씨는 고졸로서 자영을 하여 경제적으로 성공한 3남매의 아버지로서 착실하고 알뜰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부부 금실도 좋다. 그는 5남매 중 큰아들로 태어났으나 부모님의 극심한 불화로 지금까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왔다. K씨는 어린 시절에 부모들이 자기를 소외시켰다는 느낌을 갖

고 있으며, 부모님으로부터 버려진 자식 취급을 받았다고 여긴다. 그 결과 성인이된 지금도 사람과의 접촉을 두려워하며 대인관계에서 먼저 말을 걸기 힘들어 한다. 더 더욱 자기를 표현하지 못한다.

K씨의 어린 시절 아버지는 어머니와 형제들을 닳치는 대로 때렸으며 가재도구도 잡히는 대로 부수었다. 결국 어머니의 기출이 잦아졌고 자신은 아버지의 분풀이 대상이 되었고, 남겨진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부담감에 매우 힘들었으며, 늘 긴장되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다.

K씨가 일곱 살이 되던 해 어느 날 어머니와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어머니는 여동생을 업고 나무를 머리에 이고 자기는 남동생을 등에 업었는데 너무 다리가 아파서 걸을 수 없다고 했다가 심하게 매를 맞았던 기억이 있다. 그 당시 어머니는 걸핏하면 “다 버리고 도망가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실제로 그런 일을 반복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은 아버지 분풀이의 대상이었다. 그는 밤이 되면 어머니가 도망가지나 않을까 어머니가 자기를 기다렸다가 엄지발가락에 실을 묶어서 어머니의 발가락에 묶어놓고 잠을 잤으며, 그러다가 들키면 불쌍히 여기는커녕 무지막지하게 매를 맞았다.

지금까지도 풀지 못한 과제는 부모님과과의 관계이며 정말 잘 해드리고 싶고 화목하게 살고 싶은데 만나기만 하면 부모님의 태도는 냉담하여 차갑기 한량없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욕설과 언쟁뿐이다. K씨는 세상에 태어나 부모로부터 단 한번도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괴로워한다.

3) 성적 학대

성적 학대란 미성숙한 아동과 청소년을 그들이 동의할 수 없는, 그리고 사회적 금기를 어기는, 이해하지 못하는 성적 활동에 개입시키는 것이다. 즉, 성기나 기타의 신체접촉을 포함하여 강간, 성적 행위, 성기노출, 자위행위, 성적유혹 등 가해자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를 말한다. 신영화(1986)에 의하면, 우리나라 11-14세 아동중 5.8%가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1.9%가 성기노출, 1.7%가 입맞춤, 1.4%가 강간을 당한 경험이 있다. 홍강의·강병구·곽영숙(1998)의 연구에 의하면, 일차진료 대상 1,205명 중 157명(13.0%)이 친족으로부터 성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 그중 15세 이하의 아동을 보면, 가해자가 형제자매 58명(36.9%), 계부 32명(20.4%), 친부 26명(16.6%), 친척 25명(15.9%)로 나타나고 있어 가해자가 아는 사람일 경우가 많았다. 성적 학대의 경우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아동과 부모들이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 은폐되므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성적 학대는 아동의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른 것을 말하며 타인에 의해 저질러지며 성폭력이 된다.

이러한 성적 학대에는 근친상간이나 강간, 아동의 생식기를 가지고 놀리는 행위, 아동의 성기를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에 접촉을 요구하는 행위, 성교, 폭력적 행위, 아동 앞에서 옷을 벗으며 자기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강제로 애무를 하거나 키스를 하는 행위, 아동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행위, 소아

나체를 보는 것을 즐기거나 포르노 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 사례 : 25세의 부부 성생활을 고민하는 Y부인 -

Y부인은 초등학교 5학년 때 공원에 친구들과 놀러갔다가 공원 화장실에서 칼을 든 청년에게 성폭력을 당했으며, 6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친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해왔다. 3남매의 막내딸로 태어난 그녀는 어머니가 상업을 하느라 늦게 귀가하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단둘만 있는 날이 많았다. 아버지는 한번 그런 성 관계를 하고 난 후부터 아무도 없는 저녁이면 그녀를 방으로 끌어들였다.

처음에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 생각했으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그런 아빠가 싫었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어린 마음에도 그것이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아버지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된다고 하여 그 사실을 숨겨 가슴에 묻었다. 그런 일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계속되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그녀의 친한 친구의 어머니를 집으로 데리왕서는 비디오를 켜 놓고 성 관계를 했다. 그때 밖에서 그 광경을 목격한 Y부인은 너무 화가나서 소리쳐 울었으며 친구 엄마가 돌아간 후 장작개비를 들고 들어가서 비디오, TV 등 모조리 부수어 버렸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소리 안하고 밖으로 나가 버렸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돌아와서 미친년이라며 때렸다.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가족 아무에게나 달려들어 발광을 하며 분풀이를 했는데 밤늦게 돌아온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으며 지금도 그 때 일을 생각하면 미칠 지경이다.

7년 전 겨울 아버지는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와의 일은 그로서 끝을 맺게 되었다. 아버지 대한 감정은 싫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다. 가족들은 유독 자기만 미워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으며, 형제들 중 자신이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고 있다. Y부인은 24세 때 10년 연상의 남자를 만나 식구들이 반대하는 연애결혼을 하여 현재 임신 8개월이다. 남편은 자그마한 사업을 하였으나 IMF 여파로 부도가 나서 생활이 어렵게 되어 애기를 출산할 때까지 친정에 가 있기를 바라며 갔다가 어머니의 냉대와 형제들의 푸대접에 못이겨서 돌아왔다. 결혼 후 남편과의 잠자리에서 아버지와 관계가 떠올라 죄책감에 시달리며 잠을 못이룰 때가 많았다.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4) 방임적 학대

방임적 학대는 보호자가 아동에 대한 양육, 보호를 소홀히 하여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즉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음식, 위생, 난방, 의복, 안전주의 등 아동의 안

전과 행복을 위해 필수적인 여건들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이다.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위험하고 불결한 주거환경에 아동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 등을 신체적 방임이라 하고, 아동이 고통을 호소해도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해주지 않는 것 등을 의료적 방임이라 한다. 말을 걸거나 안아주는 등 아동이 필요로 하는 신체적 접촉을 피하여 정서적 결핍을 주는 행위는 정서적 방임이며, 학교에 무단결석 시에도 고의적으로 방치한다면 교육적 방임이라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에 따르면, 방임적 학대에서 숙제를 하는지 관심이 없다 63.2%, 어두워질 때까지 혼자 집을 본다 62.3%, 학교 준비물을 챙겨 주지 않는다 61.8%이다. 그 외에도 청결하지 못한 옷, 단정치 못한 머리모양, 날씨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 등을 입든지 말든지 제대로 불살피지 않는 행위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위생상태가 매우 불결한 행위, 음식을 구걸하고 다니게 하는 행위, 학교를 보내지 않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 사례 : 26세의 정신지체 장애자가 된 L양 -

26세의 초등학교 중퇴 학력을 가진 L양은 현재 정신지체 장애자로 분류되어 있다. 그녀는 모자를 푹 눌러쓴 채 바로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불안감에 가득 차 있으며 상담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으며, 손과 몸을 떨었고 발음도 정확하지 못했다. 간혹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는 흥분되고 떨리는 어조였다.

L양의 어머니는 그녀를 낳자마자 가출하였고 아버지에 의해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그러자 친할머니가 찾아다니다 발견하여 L양을 키웠다. L양은 7세때 새어머니가 집을 드나들기 시작하였는데 8세 때 새어머니가 지붕에서 그녀를 떠밀어 떨어뜨려서 머리를 다쳤다. 그 이후로 L양은 정신은 온전하지 못했다. 9세 때에는 새어머니가 밥에 쥐약을 넣어 죽을 뻔했으며 12세 때에는 새어머니가 친딸을 데리고 집에 들어와 함께 살았다. 그 때부터는 더 심하게 L양을 구박하였다. 또한 L양은 12세부터 22세까지 할머니와 따로 살아오는 동안 아버지에게서 성폭행을 당해왔으며 아버지의 친구들로부터도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모두 할머니가 얘기해 주어서 알고 있다.

4. 아동학대로 인한 후유증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학대유형에 따라 피해대자의 후유증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여기서는 위에서 제시한 영역별 사례에 따라 후유증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후유증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동

김광일·고복자(1987)에 의하면, 심한 구타를 당한 아동의 행동장애 및 정신신체장애 증상이 공부하기 싫다(23.4%), 살고싶지 않다(16.0%), 물건을 부순다(13.8%), 즐겁지가 않다(11.7%), 친구와 싸운다(11.7%), 두통이나 복통(23.4/11.7%), 편식/과식(22.3%/17.0%), 불면증/야뇨증(16.0/2.1%)로 나타나 그 후유증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신체학대의 장기적 후유증을 보면, 정신지체와 언어장애를 보이며(Elmer, 1965), 과잉행동, 공격성, 학교폭력, 학습장애 등 부적응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이들은 성인이 되더라도 자녀를 학대하거나 아내를 폭행하며, 엄격한 훈육과 체벌을 하게 된다. 심한 경우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살, 알코올 남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홍강의, 1999).

위의 N양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녀는 아버지의 구타, 친어머니와의 이혼, 그리고 새어머니를 맞이하면서 아버지와 새어머니로부터 이중적 학대를 받게 된다. 그 과정에서 참지 못하여 가출을 결심하고 가출후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어머니의 돈을 훔치려다 들리게 되면서 결국 가출을 하게 된다. 가출 후 자연스럽게 유사한 또래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남자 친구를 사귀어 임신을 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절도까지 하게 된다. 이처럼 신체적 학대는 신체적 외상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부적응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견디기가 어려워 갖가지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

이 외에 신체적 학대로 인한 후유증을 보면, 심한 경우 두개골 골절 및 복부·흉부·고막파열이라든가, 열창, 화상, 시력상실, 치아, 사지골절, 담뱃불로 지진 상처, 할퀴 상처 등이 있다. 심리적으로는 집에 들어가기 싫거나 화가 나면 물건을 부수고 누군가를 때려주고 싶어한다. 등교거부, 학습부진 등의 행동장애를 보이기도 하며, 두통, 식욕부진, 호흡곤란, 말더듬기, 복통을 호소하며, 우울증, 자살행동, 공포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최근에 자수한 고문기술자 이근안씨로부터 고문을 당했던 사람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정신이상 증세가 나타나 지렁이가 뱀이 되고, 다른 사람이 닭과 돼지로 보이는 환각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신체적 학대는 고통스럽다.

2) 정신적 학대를 받은 아동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K씨는 부모의 불화를 보면서 자랐고, 사랑을 받지 못하여 늘 혼자라는 소외감을 갖게 된다. 거기에다 어머니의 잦은 가출과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리겠다'라는 으름장으로 불안과 두려움의 나날을 보냈다. 이처럼 부모로부터 받은 정신적 학대는 일생동안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기 어렵게 한다. K씨는 나이가 4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어려워하고, 여전히 부모에게는 자기의 생각을 말하기 두려워한다.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K씨의 자존감을 떨어뜨렸으며, 이로 인해 어느 누구에게도 떳떳한 자기의 모습을 보이기 힘들어한다. 그래서 늘 긴장되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K씨의 경우 외에도 정서적 또는 언어적 학대를 받은 사람들은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늘 활기가 없고, 신체의 발달이 지체되고, 자살행동을 보이기도 하며, 도덕발달의 결함을 보이거나 수동적이면서도 공격적·도전적인 행동을 보인다. 거의 웃지 않고 놀지 않으며 깊이 잠들지를 못한다. 다른 성인과 관계에서 관심을 끌려고 하여 항상 뭔가 더 필요하고 부족하다는 느낌을 보인다.

유아의 경우 목적 없는 과다행동을 보이고, 수동적으로 순종적이지 않으며, 공격적이고 도전적이다. 학령기 아동은 적대적, 수동적이고 위축되어 있으며, 파괴적이며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인다. 또한 발달상의 일탈이 나타나는데 시키기 위해 가식적인 조숙함을 나타내 보이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무감각하다. 자아개념상의 특성으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며, 자신을 착하든지 나쁘든지 또는 그 외의 어떤 식으로든 생각하지 않는다. 정서적으로 방임된 유아는 부정적 자아개념을 갖고 있으며, 학령기 아동의 경우 실패에 대해 당연함을 느낀다.

3) 성적 학대를 받은 아동

성적 학대의 초기반응을 보면, 수면장애나 신경질, 가해자에 대한 공포심, 분노, 부적절한 성행동이 나타나며, 행동양상으로는 성에 대한 집착과 강박적인 성행동을 하며, 난폭하고 난잡한 성행위를 한다. 또한 지나치게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며, 신뢰감이 부족하고, 위축되고 퇴행적인 행동을 하며, 우울증, 자살충동, 가출 등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기억상실이나 백일몽, 공황장애, 가족내 성학대, 남녀관계를 맺기 어려우며, 문란한 성적행위를 한다(홍강의, 1999)

위의 Y부인의 사례에서 보듯이 성적 학대를 받은 경우는 다른 학대에 비해 더욱 삶이 고통스럽다. Y부인은 낯모르는 청년으로부터의 성폭행 이후 친아버지와 오랜 성 관계, 그리고 친아버지와 Y부인의 친구 어머니와의 성관계 목격 등 성에 대한 혐오감과 죄책감으로 인해 남편과의 성생활이 원만하지 못하여 늘 죄를 지은 듯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정서적인 후유증 외에도 복부통증, 구토, 요도관 감염, 외음부의 출혈 및 상처, 인두감염, 성병 등이 나타나며 갑작스런 체중감소나 증가를 보이고 수면장애, 강박적인 자위행위, 조숙한 성적

놀이 등을 한다. 퇴행, 배변훈련의 실패, 잦은 목욕, 그리고 원인 없이 울거나 집안에만 머물려고 하면 우울증, 성도착증세를 보이고 남자에게 공포반응을 나타낸다.

성적 학대의 사회 정서적 영향은 다른 유형의 학대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성적 학대의 영향은 심리적, 행동적, 신체적 측면에서 관찰될 수 있다. 심리적 영향으로는 낮은 자존감과 죄책감을 느끼게 되며, 지속적인 자기혐오와 낮은 자존감은 차후의 성폭력에 대해서도 방어능력을 상실하여 또다시 피해를 당하는 취약한 특성을 갖게 된다. 또한 가족뿐 아니라 어른이나 또래로부터 멀어지고, 위축감을 느끼거나 공격적 성향을 보여주며, Y부인의 경우처럼 가해자에 대해서도 사랑과 분노의 양가 감정을 나타내기도 한다.

행동상의 특징으로는 어린 아동들의 경우 연령에 맞지 않는 성적인 놀이를 하거나 성기의 빈번한 노출, 어른에 대한 도발적인 행동 등 성적인 행동을 현저하게 많이 나타내 보인다. 사춘기 이전의 남아는 성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상의 특질을 보이며, 사춘기 아동은 약물남용, 가출, 자살시도, 난잡한 성 행동, 매춘 등으로 고통과 분노를 나타내며, 남아의 이러한 행동은 희생자로부터 가해자가 되는 증표로 해석된다. 신체적 증상은 야뇨증과 통제되지 않는 배설행위, 거식증, 식욕감퇴, 비만 등이 흔히 관찰되지만 때로 성병 감염, 성기에 상처를 입는 일도 있다.

성적인 학대는 피해당시에 공포, 분노, 적개심, 죄의식, 수치심을 강하게 느끼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소녀의 경우 남성과의 애정적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근친 성폭력 피해 아동들은 사실을 말하기 어려워한다. 비난이나 불신을 당하게 될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가족 내에 가해자가 있을 경우는 타인에 의해 발견되기까지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는다. 근친 성폭력의 경우는 결혼해서 자녀를 생산하고 남편과 함께 가족을 이루면서 어릴 때 느껴보지 못한 또 다른 죄책감이 골 깊게 나타나는 것이다.

4) 방임적 학대를 받은 아동

위의 L양의 사례에서 보듯이 방임적 학대의 경우는 신체적·정신적·성적학대의 후유증을 모두 합쳐놓은 것 같은 고통을 겪는다. 우선 신체적으로 손과 몸의 떨림으로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정서적으로는 불안하여 흥분되거나 떨려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어져 버렸다. 한마디로 L양은 부모의 방기로 인해 만신창이가 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방임학대의 경우는 이 외에도 문제가 너무 많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알 수 없을 정도이다. 근친성폭력으로 인해 피해, 낯자마자 버려진 사실에 대한 분노, 사람에게 대한 불신, 그에 따라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지나친 애착을 갖게 되고 헤어지면 상처를 많이 받는 등 여러 문제들이 있다.

또한 영양불량으로 신체가 허약하며 몸이나 옷이 더럽고 머리 모양이 단정치 못하다. 계절이나 날

씨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며 배고프다고 말하면서 간식이나 점심을 더 달라고 한다. 상처를 치료하지 않은 채 등교하고 지각을 자주 하는 편이며, 아무 연락 없이 결석하기도 한다. 준비물을 자주 가져오지 않고 방과후 집에 가지 않고 서성거린다.

5. 마 무 리

아동들은 부모와의 첫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개인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형성한다. 그리하여 사회인으로서 타인들에 대한 자신의 가치나 사람들간의 관계에 대한 성질들을 이해함으로써 원만한 삶을 영위한다.

그러나 부모의 갖가지 학대나 이혼으로 인한 부모와의 관계 악화는 자신에 대한 자아정체감이 확립되기 어렵고, 이로 인한 자기통제 부족과 주의 분산으로 공격적, 반항적이 되기 쉽다. 또한 어린 시절 학대를 받으며 자란 아동은 사랑을 받은 경험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미숙하고, 공격적이며, 의존적인 성격으로 발달하여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반복적인 경험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학대 행동은 다음 세대로 전수된다. 아동들은 그 자신의 아동기에 부모역할에 대한 대부분의 것을 배우게 된다. 학대받은 아동들은 그들 자신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학대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

아동 학대의 후유증은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된 후에야 점차적으로 두드러지기 시작하며 자라는 과정에서 그 후유증이 있다할지라도 아동기에 직접 상담을 오는 경우가 드물고 아무도 그 증상을 예측하거나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다. 그러므로 부모들이나 성인들은 자신들이 자라온 과거를 돌아보아 어떻게 아동들과 관계를 갖는 것이 보다 아동들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지를 자각하여 그것을 실천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공계순(1999).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대책", 「아동학대와 사회적 책임」 제1회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 제주지회 학술세미나
- 박혜영(1994). "학대가정의 역동", 「아동학대와 가족의 역기능」 제11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세미나 자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 위영희(1995). "아동학대와 아동심리 및 대처", 「아동학대와 예방대책방안」 한국아동학대예방충북협회세미나 자료, 한국아동학대예방충북협회
- 이근후의 역(1988). 인격형성에 미치는 아동기 감정양식, 하나의학사
- 정성호 역(1990). 딥스, 보성출판사
- 정영숙(1995). "아동학대의 원인, 현상, 예방대책", 「아동학대와 예방대책방안」 한국아동학대예방충북협회세미나 자료, 한국아동학대예방충북협회
- 주정일·김승희 공역(1984). 한 아이, 샘터사
-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1994). 한국아동학대 사례연구집,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1998). 아동학대 사례연구,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 홍강의(1994). "가족의 역기능으로서의 아동학대", 「아동학대와 가족의 역기능」 제11회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세미나 자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 (1999). "위기에 처한 아동양육과 부모역할", 「양육의 위기와 바람직한 아동양육」, 21세기 아동과 부모를 위한 교육강좌 자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 (1999). "아동학대: 누구의 잘못이며 누구의 책임인가?", 「아동학대와 사회적 책임」 제1회 한국 아동학대예방협회 제주지회 학술세미나,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지주지회

<Abstract>

The types and Cases of the Abused Child

Park, Tae-Soo

Today child abusing is regarded as one of the serious social problems. Child abusing can result in not only bruises or fractures but also fatal damage. In addition to the physical damage, it can lead to negative results to the child's social and psychological development by the society. This paper presents the reason to be concerned about the child abusing problems which are coming to the front as social problems, the types and cases of the abused child, and the aftereffects of being abused.

The reason to be concerned about the abused child is that the relations with family members or friends during the childhood have an effect on the relations with other people even after the person grows up to be an adult. The child who is rejected by parents when young has a feeling that he/she is being rejected by others all his/her life.

Even though the person's spouse, children or friends are devoted to him/her, he/she can't get out of the rage originated from the childhood experiences. In additions with the other sex friends or marriage life.

The types of the abused child can be divided by physical abuse, mental abuse, sexual abuse and noninterfering abuse, according to the areas of the abuse. As we can see in the cases of counseling each type, being abused of childhood can result in fatal influences on the individual's personality formation in the process of growth and during adulthood.

The abused child believes that he/she is useless and valueless as he/she grows up.

The frustration caused by this can be revealed as anger and a hostile feeling against close people. The abused child learns that adults can't be trusted through his/her parents, and has difficulties with personal relations which need trust. Because the abused child is lacking in the experiences of being loved, he/she develops immature, offensive and dependent character, which in turn appears in he/she children as repeated experiences.

We hope that children will grow up to be persons who are loved and respected, and when they become parents, they can develop the relations in which they love and respect their children.